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1> 예배란 공경과 하심의 뜻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보(三寶) 사찰이라고 한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하여 불보(佛寶) 사찰이라 하고,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목판본 '팔만대장경'을 모셨다 하여 법보(法寶)사찰이라 하며, 송광사는 대대로 훌륭한 16국사를 배출했다고 하여 승보(僧寶) 사찰이라 한다.

삼보는 불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보물로써,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그 진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으로서 법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말하는 데 보통 불(佛) 법(法) 승(僧) 삼보라고 한다. 절에서 드리는 예불은 이 삼보를 공경하는 뜻을 드러내고자 두 손 모아 자신을 낮추어 절하는 의식이나 예배라고도 한다. <선가귀감> 51장에서 예배가 지닌 참뜻을 일러주고 있다.

禮拜者 敬也 伏也 恭敬眞性 屈伏無明
예배란 공경과 하심의 뜻이 있으니 참성품을 공경하고 하심하여 무명을 없애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무명을 끊고 자신의 성품을 보아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진리를 깨달지 못한 우리 처지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바쳐서 귀의해야 할 곳이며 공손히 받들어서 잘 모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절속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야 한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나'라는 생각으로 시비분별을 일으켰던 마음을 잠재우면 마침내 시비분별의

근원인 미세한 무명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긴 절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면 자신의 참성품에 나아갈 수 있다.

옛날 법달(法達) 스님은 일곱 살에 출가해 법화경을 읽고 줄줄 외우면서 다녔다. 하루는 선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육조 스님을 찾아와 절을 하는데 지란심 때문에 태도도 불손하고 머리가 땅에 닿지도 않았다. 육조는 이 건방진 모

낮춤과 공경하는 마음 우러나면 심신 깨끗해져

'나'라는 무명조차 사라지면 부처님 세상 드러나

습을 꾸짖어 "가르침을 받고자 절을 하면서도 태도가 불손하구나. 공손히 예를 갖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대 마음속에는 반드시 '나' 잘났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무슨 공부를 해 오고 있는냐?" 묻자, 법달은 "지금까지 법화경을 삼천 번이나 읽었고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고 다니니다"라고 답했다. 육조는 "법화경을 천 번만 읽거나 읽고 외워 뜻을 환히 알고 있더라도 그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법을 이야기 할 만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화경을 읽어지고 다니면서 '잘났다는 허물'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계승이나 들려라.

禮本折慢幢 頭奚不至地 有我罪即生

忘功福無比
절은 본디 아만을 꺾는 것인데 / 여지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나 / 잘났다는 그 생각이 죄를 만드니 / 나 낮출 때 생겨나는 그 복이 으뜸.

법달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크게 잘못을 깨달아 참회하며 아만을 떨치고 나서야 법화경의 참뜻을 깨달았다. '나'라는 생각이 떨어져야 시비 분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니 아만을 꺾고 하심을 하는 데에는 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절의 종류는 일곱 가지나 된다.

첫 번째 법달 스님처럼 '나 잘났다는 절'이니 공손하지 못한 절이다. 이런 절은 오히려 절을 해도 불련한 절이 되어 옆에서 보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명예를 구하는 절'이니,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도모하고자 절을 하는 것이다. 요즘 이렇듯 명사들처럼 무엇 좀 해보려고 아무 관련도 없는 행사에 일부러 참석하여 절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눈도장을 찍어 뒷날의 이익과 명예를 도모하려는 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공손한 절'이니, 절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공손하여 정중하고 깎듯하게 올리는 절이다.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이 즐거우니 겉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절이다.

네 번째는 '지혜로워 맑고 깨끗한 절'이니, 절을 하는 사람이 절 자체가 수행임을 지혜롭게 알고 열심히 절을 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절을 하고 난 뒤에는 세상을 보는 안

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두루 법계에 들어가는 절'이니, 한 번의 절로써 두루 법계에 계시는 사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절을 계속 하다보면 절을 하는 중생과 절을 받는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법계 이치를 통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한 번의 부처님께 절을 해도 사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 된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통찰로 정성을 여 하는 절'이니, 이 절이 사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절임을 깊이 깨닫고 지극정성을 들여 하는 절이다. 절을 통해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사라짐을 보면서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께 하는 절이다. 일곱 번째는 '실상 그 자체가 평등한 절'이니,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절하는 사람의 실상이 '땀 빈 총만'이 되어 모든 것이 평등하여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절이다.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절로써 중생과 부처님이요 깨달음이 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身口意 清淨則 出世
몸과 입과 뜻이 맑고 깨끗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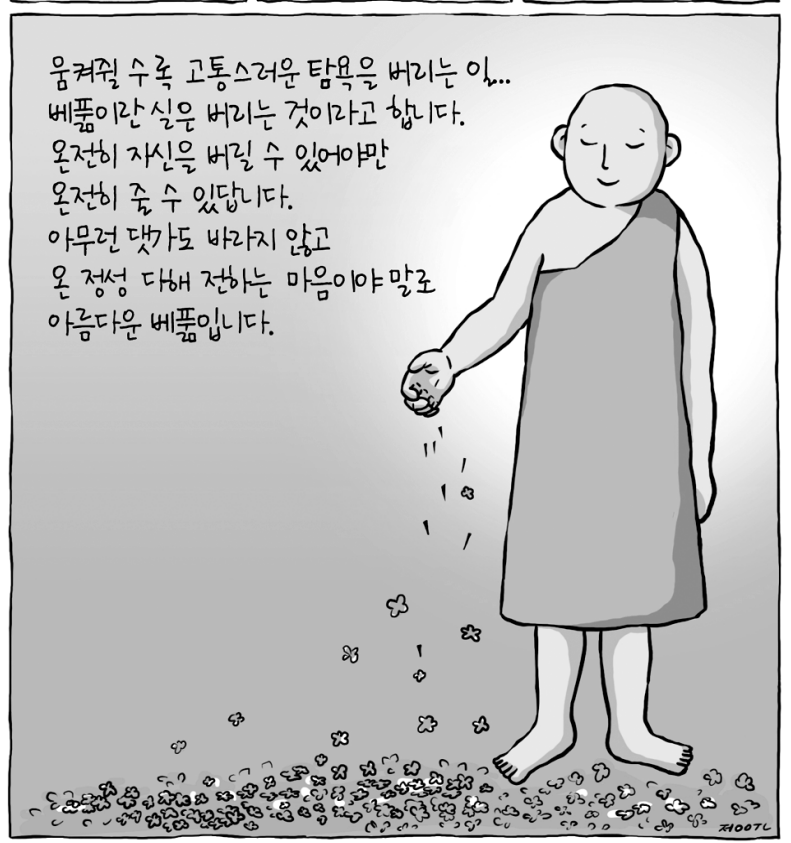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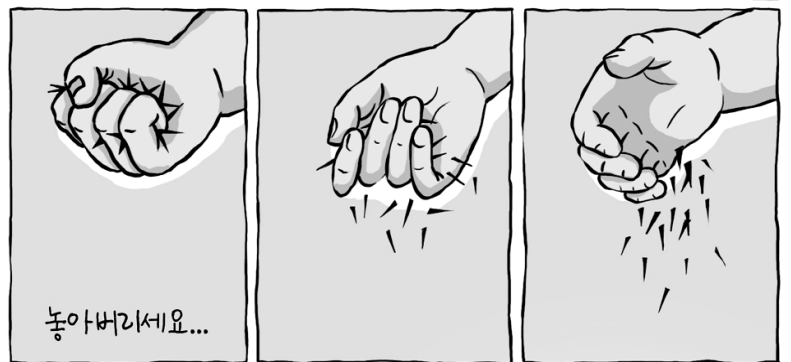
절이란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야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나를 만들어나는 무명도 없어진다. 무명조차 사라지면 참성품이 드러나니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다. 곧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드리는 절 한 번에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땀 빈 총만'이 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아름다운 배품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안심(安心)

달마 스님과 제자 헤가 스님간에 오간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아십니까? 어느 날 헤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마음의 평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달마 스님은 "그대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

고 답합니다. 그러나 헤가 스님은 이렇게 되묻지요.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달마 스님은 "찾을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었는가? 나는 벌써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 끝에 헤가 스님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안심은 마음을 한 곳에 안주시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크게 깨달거나 마음을 깨물어 보아서 절대의 경지에 이른 것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안심은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안심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를 말한 것에서 비롯된 불교용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하여 극락왕생의 신앙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뜻을 풀어냅니다.

달마 스님은 "안심은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활짝이는 마음이 없애지는 것"이라며 "안심은 마음이 벽과 같아지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도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2강 왜 불교인가

<금강경>은 50회의 횡설수설에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한편 절반의 분문 강과 곳곳에 <금강경>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불교는 문자와 경전 밖의 불교를 말하지만, 또 한편 충분히 드러내기에, "사구계 하나를 수지독송하라"고 권한다. 이 모순은 문자보다 위대한, 문자를 잊게 한 바로 '그 삶'이 시킨 일기 때문이다. 그 뜻을 14장이 요약하고 있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는 법, 이 법은 무실무허(無實無虛)하다."

무실, 문자는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무실(無實)이 무엇인가. 불교는 경전이나 강외에 있지 않다. 문자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삶을 언제나 기억해주어야 한다. 문자가 삶과 접맥되지 못하고 곁들 때는 차라리 낫다. 문자가 삶을 위한 충실한 노복 혹은 조인자의 역할을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때, 생기는 비극은 차라리 문자 없이는 세상의 불행함보다 못할 때가 많다.

이 깨해는 너무 많이 듣고 보아 왔다. <장미의 이름>에는 '웃음'이라는 불순한 바이러스가 담긴 책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살인을 불사하는 근엄한 수도사가 나온다. 조선의

유교, 그 가장 큰 패착은 옛 경전에 담긴 문자를 절대적 권위로 여겨, 현실의 삶의 요구와 변화를 돌아보지 않은 데 있다.

기독교와 유교, 이슬람은 자신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자부심이 강하고 넘쳐 '노 아더 네임(No other name), 즉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없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려 한다. 과거의 수많은 종교 전쟁들이 그렇게 생겼고, 지금 유포되는 문명간 충돌도 그 반복과 연장선에 있다. 이럴 때면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물론, 기독교와 유교 안에도 '말씀이 도구'이며, 그런 점에서 상대적일 뿐이라는 겸손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곧 이 단어로 단죄되어 박해를 받거나 순교했다.

불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성찰했고, '자신의 전통 내부에' 이 독극물에 대한 해독장치를 해 놓았다. 그 유연성이 불교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내가 길ियो,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넘쳤으며, "애야, 나는 다만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 나를 위로 경배하지 마라"라고 권한 종교는 내가 아는 한 불교가 유일하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위해 길을 밝혀 주었으며, 자신이 금박에 봉인되어 신전에 모셔지는 것을 원

치 않았던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한다."

삶을 위한 경전

무실(無實)이 어디 경전만에 해당되었는가. 우리가 '전통'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 모두 기실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 밖의 소식과 만날 때, 이름이 빛을 잃으면서, 동시에 완성되는 법이니, 이름을 지우지 못한 진리는 아직 진리가 아니다.

착하지 마십시오. 전통의 '실질'은 사람에게서 완성되며, 불교는 삶에 구체적으로 접맥되는 곳에서 활발발(活潑發) 살아있습니다. 그 지점을 떠난 곳은 모두 이름이고, 허상입니다. 선이 바로 그 일점에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핵심 아니었습니까. 선의 이름으로, 바로 그 정신에 입각하여 선의 전통을 묵수하려는 약자들을 펼쳐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를 만났을 때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 나면 부모를 죽이려는 조사들의 뜻입니다."

無實無虛, 삶의 역설적 기술



선도 회두도 이름이다. "이름 밖에서 어떻게 선을 만나고, 회두를 들 것인가." 그것이 늘 나의 화두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 강좌를 뽐낼새기로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기를 바란다. 각자의 삶이 회두 아닌가. 회두는 삶이고, 불교는 조연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다면, 조연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불교는 다만 '원론적 조연' 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만나

는 삶의 곤혹과 곤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이냐를 가르친다. 핵심은 '상(相)의 성찰'이다. 사물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과 접근을 관찰, 조건(照見)할 때, 내 자아가 세상을 분별시키고, 내 이해관계가 세상을 공경하게 다루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것 하나이다.

불교는 상(相)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풍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그것이 불교의

이것이 아무래도 좀 나은 길이지 않겠나. 아, 그리고 보니 누구보다 지금 청와대와 386세대의 정치가 불교를 배웠어야 했다.

자신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때, 일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고,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겸손이 사람 사이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된다. 틀림없다. 사람들은 그런 태도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신뢰가 있는 곳에 비경제적인 신비와 기적의 교환이 때로 일어난다. 계산에 밝아야 손해볼까 보지 않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판단은 특히 생소한 경우, 계산 밖의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다. 어떤 사안에 얽힌 수많은 상황들,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거기에 있어 지식뿐만 아니라 교양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내 경우, 내가 잘 모르는 일이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몇 마디 들지 않고 수긍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준다. 사안을 직접 스티디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실패율이 훨씬 적었다. 아니, 거의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상(相)을 관찰하고, 상을 털어내는 일이,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고, 일을 화염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로 노하우임을 절감한다. 이것은 역설이 아닌가. 너를 비우라는 손해(空)를 강요하는 가르침이 자신과 남을 동시에 요되게 하는 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는 것이, 거의 기적에 아니 가까운가. 그러나 무허(無虛), 불교의 가르침은 '출태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배워야 할 삶의 기술(ars vitae), 그 중심이며 그것의 이익은 그야말로, '삼천대천세계를 첩보로 보시받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술이다.' 누가 불교를 비현실적이라 코웃음치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